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음 3월 11일) 제20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한지문화축제 내달 5~7일

천년을 뜨고 천년을 잇다

전주시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전주한지를 활용한 한바탕 잔치마당을 펼친다.

박순중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강진하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직무대행, 박종철 전주한지문화축제 집행위원장은 2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주요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전주한지문화축제는 대한민국 한지의 본류이자 중심도시인 전주시가 한지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축제다.

- 전통문화전당 일원서 한지패션쇼·산업관 어린이날 이벤트 등 40여개 프로그램 진행

'천년을 뜨고, 천년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주한지문화축제에서는 전주한지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개막행사·한지패션쇼 △전국한지공예대전 △체험행사 및 이벤트 △한지산업관 운영(한지관, 공예관) △전시기획전(한지조형물, 초대작가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등 5개 분야의 한지를 활용한 40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개막식은 5일 오후 6시,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한지 산업인이 중심이 되는 한지산업관의 경우, 올해는 한지관련 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주한옥마을 내 공예품전시관에 진행되며, 이 기간이 아니면 전국 어디서도 구매할 수 없는 양질의 한지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지볼랜드'도 진행된다.

올해 한지문화축제에서는 과거에는 없었던 한지산업진흥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도 관심을 끈다. 한지 산업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만나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한지산업발전포럼'을 열고, '한지패션산업 재도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갖는 등 한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올해 축제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가정의 달 5월에 진행되는 만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망꽃밭 조성 △한지연 만들기 △한지카네이션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특히,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어 주목받고 있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단과 함께하는 한지종이 비행기 날리기가 주목할만한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특히, 시와 축제 조직위는 올해 축제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축제에서 소외감을 갖기 쉬운 장애인들을 특별 초청해 한지패션쇼에 참가토록 하고, 일반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전주한지문화축제에서는 30여개의 한지관련 다양한 체험들도 준비된다. 전통한지공예 체험부스에서는 색지·지승·지호·지화·후지 공예 등 전통기법의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완판본문화관과 전주역사박물관, 부채문화관 등 전주시 문화시설이 함께 참여하는 연계체험관도 운영된다. 또, △한지필터로 내려 마시는 한지 커피 체험 △유명 캘리그래프스트 최루시아가 함께하는 한지 캘리그래프 행사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강진하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전통문화보존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이벤트 행사를 다수 준비해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뜻깊은 체험을 선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장수 봉화산에 만개한 철쭉 대향연



25일 오후 장수군 봉화산(해발 920m) 철쭉단지 내 철쭉꽃들이 화려한 꽃망울을 터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 추진

靑 "5월 중순 예상"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전인 다음 달 중순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운영차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나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수석은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은 이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상황, 특히 이미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쳤다"며 "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전화통화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사람은 또 북미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추진하는

방안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이 볼턴 보좌관을 만난 것은 지난 13일 이후 열흘만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현재까지의 남북 간 진행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회담의 '길잡이'라고 전망한 만큼 북미 회담의 성공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의 방미 배경에 대해 "진행상황 수시로 바뀌어서 남북 간 협의 내용에 대해서 한미 간에도 긴밀하게 공조를 하기 위해서"라며 "아무래도 전화 통화보다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게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좋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 논의를 위해 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합의가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다음 달 중순

쯤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종 날짜는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 정도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평양 재방문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정 실장이 미국을 찾은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정 실장이 미국 쪽의 채널과 더 연락을 자주 맡아주셔야 할 분이고, 서 원장은 북측 채널을 이야기하셔야 할 분으로 서로 맡은 역할에 대해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의 방미는 볼턴 보좌관이 공식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미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의미로 담겼다는 것이다. 서 원장의 역할분담을 거론한 것으로 볼 때 서 원장의 방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 원장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 실장이 볼턴 보좌관을 만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재활용품 수거거부 민관 대응·협력 나서

전북도는 25일, 최근 일부 지자체 아파트에서 발생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거부 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전북도와 시군관계자등 40명이 대응대책 회의를 했다.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 14개 시군 환경부서 및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과 도내 공동주택관리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시군별 폐비닐 수거 현황 및 수거거부 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시군의 수거 대책 발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관련 시군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거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대응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시군 환경부서는 아파트 수거실태 조사를 통하여 수거운반, 처리 등의 비용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독려하여 거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선별된 재활용품 보관장소가 부족한 경우 공공선별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업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은행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 그 누구에게나 희망과 위로 그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